

살아온 세월만큼 나무는
정직하게 나이테를 드러준다
굽이치는 나뭇결에
인생의 역정을 드러내놓고
그냥 그렇게 삶을 관조한다
나무는 인간과 역사를 같이하며
다양한 삶을 살았다
어느 집 기둥도 되고
공사판 자재도 된다. 나무도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야
제품격을 지니는 법



/ 김시범기자 sbkim@kgib.co.kr

경기도에는 뛰어난 재주와 기예를 갖고있는 예인·장인들이 많다. 이들이 맥을 잇고 있는 전통문화에는 조상들의 열이 담겨있고 우리 민족혼이 살아 숨쉰다. 세계화·정보화시대, 경기도내 무형의 문화자산을 총정리해 보고 대중들앞에 내보이는 것은 지역의 문화발전과 우리문화의 세계화에 한 몫하는 일이다. 경기일보는 경기문화재단과 공동으로 '경기의 예인·장인-경기도무형문화재를 찾아서' 시리즈를 격주로 마련,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과 소중함을 일깨우고 경기문화 정체성 찾기에 일조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꽃살문 나뭇결 타고 ... 천년의 숨결 살려요

경기도 무형문화재를 찾아서 <1>



제14호 소목장 김순기씨



전통창호를 만드는 경기도 무형문화재 14호 소목장(小木匠) 김순기씨(63·수원시 장안구 북수동)는 나무와 함께 50년을 살아온 장인이다. 목재를 다루는 장인은 크게 궁궐이나 사찰 또는 가옥을 짓는 건축일을 하는 대목장과 장과 농, 문갑, 탁자, 소반 등 실내용 가구와 그밖의 목공예품을 만드는 소목장으로 나뉜다. 소목장 김순기씨는 창과 문 등 전통 창호(窓戶)를 전문으로 만들고 있다. 안성 양성면 노곡리 출신인 그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4살 되던 해 서울서 처음 목공일을 배웠다. "생계를 위해 무작정 서울 광화문 근처에서 목수일을 배웠죠. 그리고 18세부터 수원서 이규선 선생에게서 목수일을 배웠어요" 수원과의 인연은 당시 교통사정 때문. 고향 안성을 가기 위해서는 수원에서 차를 갈아타야 했는데 수원서 머무는 일이 많았으니 1960년대 당시 인간문화재로 불리던 이규선 선생과의 인연도 맺어지게 됐다. 이후 김순기씨는 군 제대 후 26살에 자신의 공방을 차렸고 36년 동안 운영해온 집념을 보였다. "다음 달이면 공방생활도 만 50년이 되네요" 오랜 세월 동안 묵묵히 한길을 걸어온 사람의 표정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이가 느껴진다. 김순기씨의 '창호 사랑'은 전국 각지의 궁궐, 사찰, 한옥에 남긴 작품에서 알 수 있다. 지난 2월말 문현궁 대원군 생가에 400여개의 문짝을 제작했으며, 경복궁 보수에 참여해 철궁, 회랑 등에 2천여개를 보수했다. 또한 최귀화, 조병욱 등 유명 정치인의 저택에도 그의 손길이 닿았으며, 현재 남한산성 복원에 참여, 1차로 400여개의 문짝을 제작중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애착이 가는 것은 최근 1차 준공된 화성행궁이다. "수원의 대표적인 문화유적 행궁을 복원하는데

하는 김순기씨는 에피소드도 많다. 춘천 총원사에서 어떤 업자가 3년전 꽃살문을 보수했는데, 재보수 의뢰가 왔다고 한다. 그 후 문짝을 만들어 갔더니 스넵게서 '조립한 것이 아닌지 뜯어보자'는 것이었다. 원래 전통창호는 나무를 통으로 써서 각을 내는데 전처럼 조각을 내서 적착제로 붙인 것이 아닌지 의심을 받고 했었다. 그는 또 충남 무형문화재 소목장이 있는 고장에서 제의를 받아 그 지역 향교 문짝을 보수해 준 적도 있다고 한다. 전통창호는 단순히 안과 밖을 드나드는 통로만은 아니다. 자연미와 인공미가 결합한 비례의 예술성을 지녔다. 그 비례는 문양에 따라 완자창·세살문·

할로는 설명할 수 없는 멋스러움을 지녔다. 정교한 수치와 디자인이 필요한 이 작업은 숙련된 기술자가 20일이나 매달려야 한다. 김순기씨는 "전통창호의 멋스러움은 이른 아침 해 뜰 때 창호를 통해 은은히 비추오는 빛의 감촉을 느낄 때"라며, "특히 완자문양 창호라면 생활 자체가 수양하는 기분일 것"이라고 말했다. 좋은 작품은 좋은 재료에서 나온다. 예로부터 최고의 건축자재는 백두산 소나무, 경북 울진, 봉화 등지에서 생산하는 춘양목. 김순기씨가 맨 먼저 정성을 들이는 것이 나무 찾는 일이다 보니 좋은 나무가 있으면 열 일 제쳐두고 찾아나서기 일쑤다. 현재 춘양목은 멸종 직전이라 간신히

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두달 동안 강릉, 울진, 봉화, 인천 등지에서 창호 만들기에 제각인 나무들을 조금씩 구입했죠. 가격도 비싸지만 저에게는 든든한 마음의 재산입니다" 김순기씨의 집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창호 박물관 같다. 3층 현대식 건물이지만 외형과 내부는 손수 제작한 나무로 문짝과 천장을 장식했다. 먼저 1층 공방 처마의 전통지붕과 격자·완자문양의 6개 문짝이 짝을 이루고 있다. "가까이서 보면 잘 못느껴요. 길 거너서 바라봐야 재맛이 느껴지지요" 기자가 1차선 왕복 도로 건너편에 자리하자 그때야 시원선 창살이 한눈에 들어왔다.

아름다운 50년 외길인생 ... 전통窓戶 사랑

운현궁·경복궁, 남한산성까지 문화유적 복원 참여

화성행궁 4천여개 문짝 제작 "제일 자랑스러워"

참여한 것이 무엇보다 자랑스럽습니다. 4천여개의 문짝을 도맡아 했습니다. 행궁을 찾는 후손들에게 우리 문화유산을 고스란히 물려준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만들었죠" 김순기씨가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경복궁 복원시 1995년 문화재위원들의 추천으로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부터다. "중앙의 문화재위원들이 저의 재주를 높게 봐준 것 같아요. 문화재가 되기전에도 그랬지만 장인이 되려면 눈속임이나 잔재주는 절대 안 부린다는 것이 저의 신념이죠" 당장 보여주기 위한 땀집식의 보수가 아닌 진정한 장인정신이 깃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젠 이름이 꽤 알려져 '김순기하면 창호'라는 등식이 성립할 만큼 났다고 한다. 전국을 돌며 문화재를 보수

보수받고 있고, 극소수의 생산품은 궁궐보수에 사용되고 있는 현실이니 김순기씨의 발걸음이 더욱 분주하다. "강릉이나 울진에서 나는 육송이 제일이지요. 예전에는 교동도 불렀지만 버스를 갈아타고 몇 십리 길을 걸어 간 적도 많았어요. 끼니를 걸러 시골 가게에서 라면 먹던 일도 다반사였어요" 김순기씨는 춘양목이나 육송을 대체할 나무를 찾기 위해 수입 소나무도 종류별로 실험해 보았다. 그래서 결국 8년이 걸려 캐나다산 홍송을 찾아내기도 했다. 나무를 보관한 창고에는 김순기씨의 보물들이 가득하다. 바로 문짝 1만개를 짤 수 있는 3만개의 나무다. 부드러운 소나무향이 가득한 창고에는 1년, 2년, 3년생으로 차곡차 정리된 나무들이 장인

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두달 동안 강릉, 울진, 봉화, 인천 등지에서 창호 만들기에 제각인 나무들을 조금씩 구입했죠. 가격도 비싸지만 저에게는 든든한 마음의 재산입니다" 김순기씨의 집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창호 박물관 같다. 3층 현대식 건물이지만 외형과 내부는 손수 제작한 나무로 문짝과 천장을 장식했다. 먼저 1층 공방 처마의 전통지붕과 격자·완자문양의 6개 문짝이 짝을 이루고 있다. "가까이서 보면 잘 못느껴요. 길 거너서 바라봐야 재맛이 느껴지지요" 기자가 1차선 왕복 도로 건너편에 자리하자 그때야 시원선 창살이 한눈에 들어왔다. 집에 들어서면 투미리 문이 달린 사랑방, 꽃살문, 창살무늬를 응용한 문짝과 균형잡힌 천장, 현대식 조명 등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섬세한 장인의 손결이 나무결을 타고 하나의 작품으로 우리 생활의 일부로 살아있다. 예전에는 '집짓고 문짝'다는 말이 있었다. 문짝을 짜려면 먼저 집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문짝을 짜는 사람은 집을 지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했다. 김순기씨는 손수 2,3층을 꾸렸고, 앞으로 전통문짝을 현대적 감각으로 개발해 전통의 멋스러움을 집안 곳곳에 담을 계획이다. 현재 그의 뒤를 잇고 있는 전수조교 안규조씨는 7년째 함께 작업을 하고 있다. 말 수가 적었지만 취재하는 동안 묵묵히 작업을 하고 있는 그의 뒷모습이 믿음직스러웠다. "좋은 장인은 인간성이 좋아야 하는데 규조는 그런 면에서 믿음이 가는 사람이죠. 일도 어느 정도 다 배웠고 제가 그만두면 사업을 물려줄 생각입니다" 요즘 남한산성 복원을 위한 창호제작에 열중인 김순기씨의 꿈은 소박했다. "성곽의 도시 수원에서 관광객들이 오면 마땅히 살만한 물건이 없잖아요. 그래서 완자문양을 넣은 3만원 정도의 전통등을 만들 생각이에요. 큰 문짝을 가져갈 수도 없고. 쉽게 조립해서 운반하기에 편리한 등을 만들면 우리것을 알릴 수도 있고 관광 상품으로도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평생직장의 개념이 점차 사라지는 요즘 김순기씨는 50년 전통창호의 아름다운 외길을 지금도 걷고 있다.

/ 이연섭·이형복기자 bok@kgib.co.kr